

'전주 맛 자랑'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비빔밥 중심으로 231가지 다양한 음식·문화등 시민·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비빔밥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6 전주비빔밥축제'를 개최한다.

'전주는 맛있다'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주음식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주대표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231가지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맛깔나게 버무려져, 행사장을 찾은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품격에 걸맞게 이번 축제를 통해 전주음식의 문화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비빔밥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각양각색의 비빔밥을 준비해 관람객과 함께 나눠먹는 대형비빔밥퍼포먼스가 올해는 팔달로 풍남문광장 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2017 FIFA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구를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다양한 신설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를 즐기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과 친구, 단체, 동호회 기업 등 100여 팀이 참여해 개성 있는 비빔밥을 뽐내는 '모여라! 비빔밥'이 축제장에 새로 선보인다. 또, 비빔밥의 유래인 '농번기살'과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2016전주비빔밥축제 기간(10월 20~23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현조직위원장이 축제의 주요일정과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는 맛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동화농민살', '제사음복살', '궁중음식' 등을 상황극을 통해 체험하고, 직접 맛보는 이색체험인 '비빔(뽀)전설'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오락형 이벤트인 '비빔밥을 찾아라'는 참가자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한 비빔밥재료로 비빔밥을 멋지게 만들어 콘테스트에 응모하고 맛보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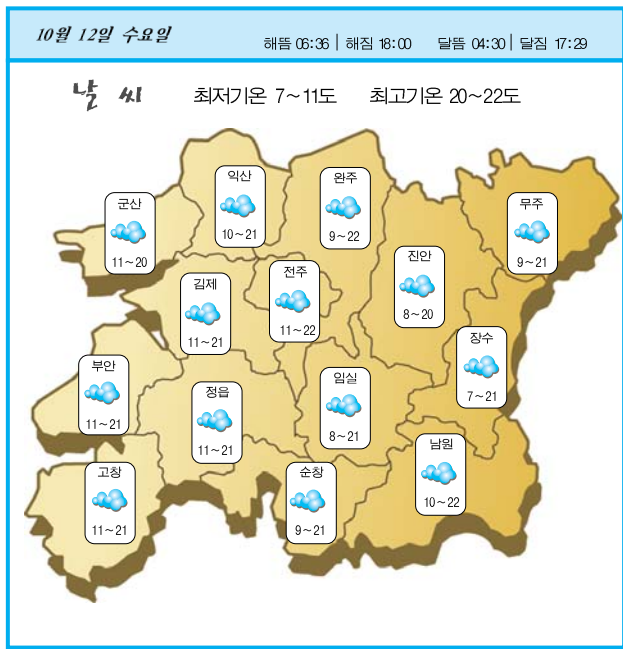
또한 전국의 음식관련 학생과 전문가 등 900여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요리경연대회는 수상자에게 국회의장상과 행정자치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이 수여되는 등 국내 요리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제현장에서 직접 세프들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판매경연대회도 참

가자와 관객이 맛으로 소통하는 미식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정일 곳곳에서 80여 가지의 다양한 간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정일' △내 맘대로 디자인한 'DIY 멋진 비빔밥' △특별 야간프로그램으로 전주의 이색안주와 술을 즐기는 '전주 술(夜)아' 등등 색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영재기자



'창업을 비비다'

오늘 전북대학교 '청년창업 한마당'

청년 창업 한마당이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 '2016 청년 창업 한마당'을 개최한다.

창업을 비비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 부스와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창업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200인분의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도 열린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문화가 조성되고, 창업과 문화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창업으로의 의식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 안내문

농지를 fb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 ▶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농지 소재지 시·군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제외시 (기본세율)	6~35% (2년이상 보유시)	적용 (최대 30%)
비사업용 토지 해당시 (중과세)	60%	해당 없음
- 2.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 공사와 임대위탁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3.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 ▶ 농지법 시행령('96.1.1) 이후 취득(중여 포함)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 불법 임대 등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동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므로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란?

이농·상속·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문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여 드립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
☎ 063) 560-1510~11

전주비전대 미안마에 한국어센터 개소

전주비전대학교가 미안마에 한국어 센터를 열었다. 11일 비전대에 따르면 미안마 북부 카린주에 비전한국어센터를 개소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문을 연 한국어센터에는 미안마 KTCSD대학 재학생 등 약 40명이 입학하며, 이들은 한국어와 전공 기초 등 1년 간 교육을 받는다.

비전대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입교수를 파견했고,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한 센터 재학생들은 2018년 3월 비전대에 입학하게 된다.

비전대 관계자는 "미안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가능성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서 "한국어센터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전북대서 유니브엑스포 개최

국내 유일의 대학생들 박람회인 2016 유니브엑스포 전주가 오늘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11일 2016 유니브엑스포 전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활에 색을 더하다'를 주제로 1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한다.

행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대 옛정문 앞의 거리와 대학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전문가들이 직접 이력서 컨설팅·작업별 멘토링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봉사단 부스 등 대학생활과 관련된 볼거리가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취업 준비에만 매진해 색을 잃은 대학생들의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가지각색의 경험의 색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행사 슬로건에 맞게 취업, 동아리, 기업, 이벤트 공익단체, 전북지역 홍보관 등을 색 짙으로 나열했으며, 수많은 색의 조화를 통해 박람회 분위기 전개를 생기기 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B-BOY 공연과 초대형 비빔밥 비비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뉴스시스

사업장·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통합

내년 1월부터는 기업들이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때문에 사업장은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통합되면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산재보험 근로자 관리인력 180여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유사 업무를 두 기관이 수행해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시, 농촌마을 골목길·이면도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전주시는 도심 지역 위주로 설치했던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외곽 농촌마을의 골목길과 이면도로에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은 기존 차량 위주의 도로표지판 설치로 인해 위치를 찾는데 불편함을 겪어온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농촌지역 중심으로 총 300곳에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도심지역에 이어 농촌마을에도 도로명판이 설치되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길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도심 지역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116곳에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을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87곳에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지 농촌마을에까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꾸준히 설치해 시민이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아 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